

본 파일은 2021-2 파란학기제 ‘혜움’ 팀의 성과물로, 파란학기 성과발표회 제출 자료용으로 제작된 별도의 요약본입니다. 실제 도서로 제작된 혜움 팀의 성과물은 2021-2 파란학기 성과발표회 부스에서 굿즈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두 쪽씩 보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 백

'나'를 찾아가는 여행

고전문학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의 모습 찾기



지은이

서지혜

안희주

유동현

황수정





지은이

서지혜

안희주

유동현

황수정

'나'를 찾아가는 여행

고전문학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의 모습 찾기

추천의 말

서로 다른 개성의 네 젊은이가 감히 인생을 논해보기로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질주하는 21세기의 한복판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나를 잃지 않을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일을 고전과 함께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전과 대화하며 오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며 말려보았지만, 이제 보니 이 네 사람이 기어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만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네 젊은이가 고전의 바다에서 각자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드넓은 고전의 바다에서 이들이 만난 사람살이의 모습과 세상의 이치는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제각각으로 보일지라도 그 속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일관됩니다. 이 여행에서 이 네 사람이 목격한 사람살이의 모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사람살이의 고민거리들이고, 고전에 대한 천천히 읽기를 통해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 옛사람들이 보여준 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전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과정을 이 책의 저자들은 여행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구성 역시 일상을 잠깐 멈추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행의 목적이 원래의 곳으로 잘 돌아오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 책의 저자들은 여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저자들은 고전의 바다에서의 여행을 통해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보여줄 발걸음이 더욱 기대됩니다. 저자들이 정성껏 소개한 고전으로의 여행을 독자들께서도 즐겁게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조하연(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차례

추천의 말 · 5

서문 · 11

1.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마음의 심호흡하기 · 20

속도를 늦추기 · 36

자연과 마주하기 · 54



2. 시선을 넓히는 연습

같은 상황, 다른 시선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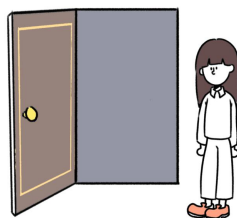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 92

3. 빛나는 ‘나’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나로서 단단해지기 · 108

나의 잠재력 깨우기 ·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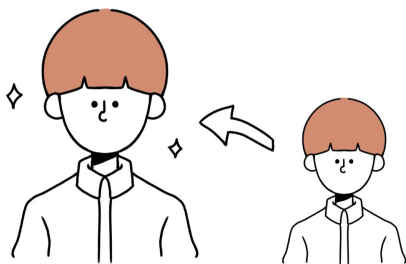
나의 꿈을 향해서 · 148



4.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기

벗(友)과 어울리는 삶 · 178

나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 · 212



작가의 말 · 228

참고문헌 · 232

일러두기

1. 각 작품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인용하였습니다.
2. 본문의 주석은 내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어 뜻풀이의 경우에는 각주(*)로 표기하였습니다.
3. 일반 저서는 『 』, 개별 작품은 「 」로 표기하였습니다.

서문

당신에게 건네는 ‘고전’이라는 위로

동이 트기 전에도 알람이 울리는 핸드폰,
출근 시간마다 빈틈이 없는 지옥철,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독서실,
적막한 밤이 되어서야 들리는 현관문 소리.
뒤돌아볼 시간도 없이 빠르게 달려가는,
고된 하루를 겨우 견디는,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점점 ‘나’를 잃어가는, 당신.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불안함을 품고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나요? 무엇이든지 간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스스로에게 실망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

록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 슬픔, 괴로움, 우울함, 무기력감, 불안함, 자존감 하락, 외로움 등의 저조한 감정을 겪으며 한층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느린 인생을 살아가다 때로는 번 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아픔을 겪는 걸까요?

급속도로 발전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끊임없는 경쟁 구도와 서열화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휴식을 사치로 전락하게 만드는 등 개개인의 숨통을 옥죄게 했습니다. 또, 경쟁을 유도하는 냉랭한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주의로 이어져 다른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나’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방해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결국 몇몇 사람들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어 소외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서로의 얼굴을 직접 맞대며 이야기를 나눌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 쉽게 단절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면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밖에도 저마다 가진 다양한 사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지치고 아파하는 마음을 지니고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냅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반복되는 아픔에 무더진다면, 본연의 ‘나’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나’를 되찾기 위해서는 잠깐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상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해,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고전문학’을 만나며

진정한 ‘나’의 모습에 한 발자국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괴곤하기까지 한데 고전이라니, 너무 힘들 것 같아.’ 혹은 ‘왜 하필 고전이어야 하는 거지?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고전은 사람들에게 ‘뻘하고 진부한 이야기’, ‘현재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읽기 어려운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아직까지도 고전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좁혀질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셈이죠.

그러나 고전은 시대에 제한받지 않고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고전문학 작품들 역시 현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전문학 역시 하나의 문학으로서 인간의 삶을 담은 커다란 그릇이기에, 어떤 고전문학 작품들은 시대를 관통하여 지금의 독자들에게까지 큰 울림을 줍니다. 고전문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다

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공감과 깨달음을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고전문학을 거닐며 자신의 삶에 대해 되새겨보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을 위해 4명의 작가가 모여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장마다 작가의 특색을 느끼며 또 다른 재미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장에서는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며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장에서는 지금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되새겨보고, 나의 시선을 넓혀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참된 ‘나’의 모습을 깨달아가며 이전보다 더 빛나는 ‘나’의 완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당당해진 ‘나’의 모습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여행의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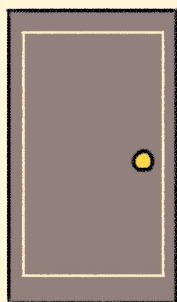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고전 세계에 방

문하여,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책의 끝에서 고전과 함께
한 여행을 마무리할 때는 비로소 한층 더 단단해지
고 성장한 ‘나’를 마주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
하연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1년 11월

서지혜, 안희주, 유동현, 황수정



1.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마음의 심호흡하기

정약용, 「수오재기」 ·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속도를 늦추기

이제현, 「운금루기」 · 작자 미상, 「수심가」 · 박인로, 「독락당」

자연과 마주하기

정극인, 「상춘곡」 · 윤선도, 「어부사시사」

마음의 심호흡하기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각자 마음 상태는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행복하거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답답함과 우울함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뜻이지요. 살면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면 매우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는 힘든 상황에 한 번씩은 마주하곤 합니다.

또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모를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를 옥죄는 사회의 분위기, 인간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불안이 자라납니다.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이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고난을 아는지 모르는지 빠르게 흘러가기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다 보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급박한 세상 속에서 이를 마땅히 풀지도 못한 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며 매일을 버텨 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힘듦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는지, 휴식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번 고난을 겪다 보면 힘든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정당화하면서 우리 몸은 소진된 상태에 적응해버립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꼴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현재의 고통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을 맞닥뜨릴 때 벌어집니다. 우리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 아웃 증후군’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신고은:2021).

이렇듯 지치고 고된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내면


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첫 시작을 마음의 심호흡으로 하고자 합니다. 고전과 함께 자신을 돌아본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마음의 심호흡을 할지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



쉬어가기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나의 감정들과 고민들을 쪽 적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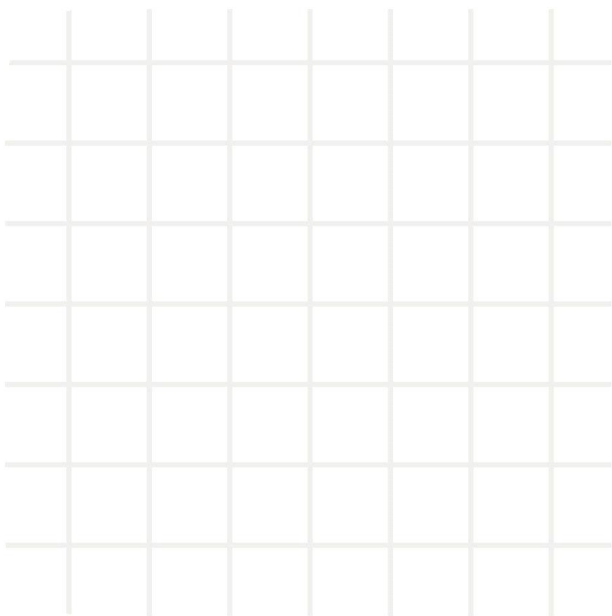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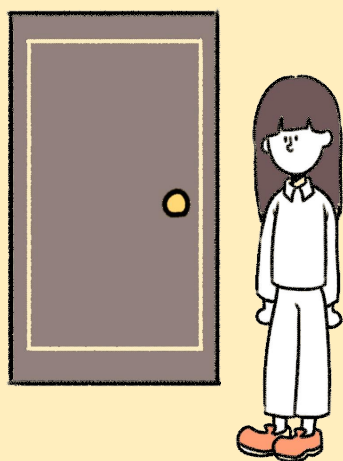
나는 어떻게 쉬나요? 쉬거나 혹은 취미생활을 할 때 나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취미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괜찮습니다.





이제 떠나고 싶은 자연을 그려봅시다. 산, 바다,
강가 등 자연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2.

시선을 넓히는 연습

같은 상황, 다른 시선

정약용, 「담박」 · 박지원, 「민옹전」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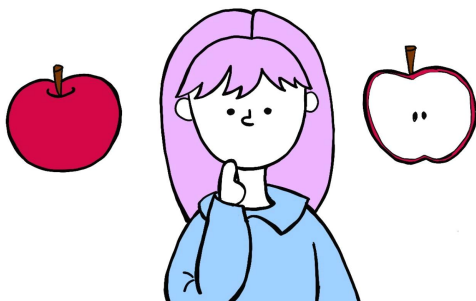
작자 미상, 「단군신화」 · 권사복, 「방안」

같은 상황, 다른 시선

사과가 가진 색

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접시에 사과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접시 위에 놓인 사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무슨 색이라고 답할까요?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과가 빨간색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아색이기도 합

니다. 껍질만 벗기면 전체는 거의 상아색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빨간색이 아닌 상아색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사과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떠나려는 여행은 바로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행입니다. 사람은 힘들면 상황을 힘든 쪽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과의 껍질이 빨간 이상, 빨간색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향을 바꿔 좋은 쪽만 먼저 보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과의 상아색을 보는

것, 즉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연습을 이번 장에서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먼저 와닿더라도 여러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넓게 보고 결국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가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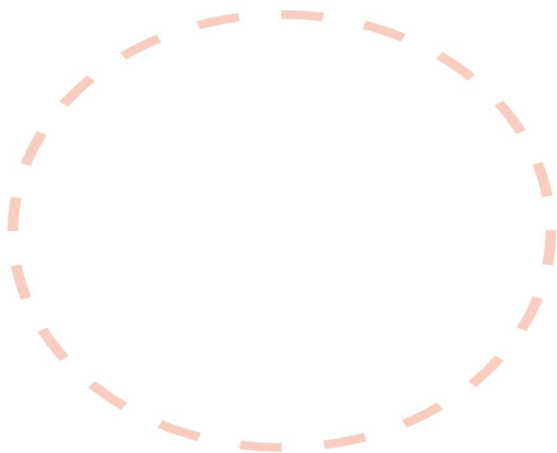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을지 고전 마을을 여행하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




쉬어가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거나 자신에게 부정적 생각이 든다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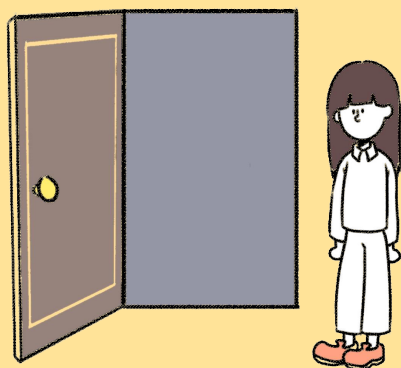
 이번에는 앞서 부정적인 부분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만도 않은 면은 어떤 게 있는지 꼭 적어 보세요.

[illegible]



자신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합해
'나'라는 사람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정의 내려보
세요.





3.

빛나는 ‘나’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나로서 단단해지기

허난설헌, 「견홍」 1 · 작자 미상, 「홍계월전」

나의 잠재력 깨우기

작자 미상, 「바리공주」 · 작자 미상, 「박씨전」

나의 꿈을 향해서

허균, 「홍길동전」 · 작자 미상, 「보리밥 장군」

나로서 단단해지기

나는 누구일까?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는 누구일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언제나 품고 있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나를 돌아보며 나에 대해 고민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의 모습을 살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는 ‘나’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아개념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아개념이란 자신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 거지? ”와 같이 스스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우리는 자아개념을 확장해갈 수 있습니다(김민한:2007).




그렇다면 왜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회의 보이지 않는 시선과 요구 혹은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평가나 작은 한 마디에 의해 행동이나 사고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나’로서 존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흠을 낼 수 있는 외부 요소들이 어떠한 여과 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맞닿게 된다면 불안함과 우울함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아닌 것들에서 잠깐 벗어나 온전한 ‘나’에 대해 고민해볼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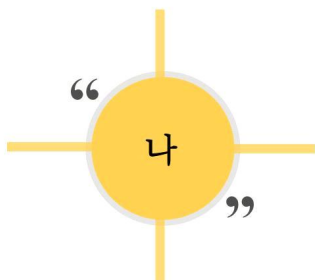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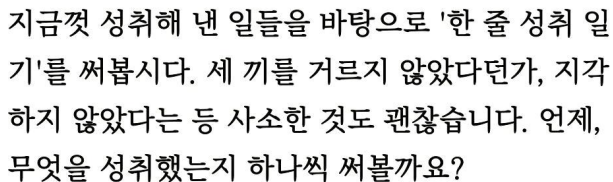


쉬어가기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적으며 '나의 마인드맵'을 완성해봅시다.

(추천 항목 : 성격, 관심사, 별명, 역할 등)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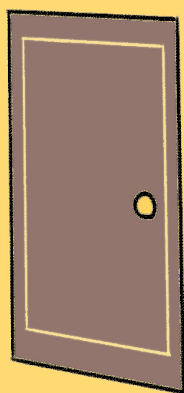


나의 일생을 '인생 네 컷'으로 요약해봅시다. 과거
혹은 현재의 내 모습도 좋고 미래의 내 모습도 좋
으니, '나'의 인생 네 컷을 마음대로 꾸며봅시다.

| |
|--|
| |
| |
| |
| |

_____의 인생 네 컷





4.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하기

벗(友)과 어울리는 삶

윤선도, 「오우가」 · 박지원, 「마장전」

나의,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삶

채제공, 「만덕전」

이 여정의 마지막 길목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여정의 마지막으로 접어들기 전에, 잠시 이 여행의 목적과 지금까지의 과정을 환기해봅시다. 이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누구보다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며 빛나는 존재로서의 ‘나’로 거듭나는 것. 즉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세 장에 걸쳐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해보기도 하고, 스스로의 시선(마음가짐)에 대해 점검해보기도 하고, 진정한 ‘나’란 무엇인지 고민해보면서 스스로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마치 항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거칠게 몰아치는 내면의 파도를 잘 견뎌내고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결의 흐름을 따라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 항해 봅시다. 사실 이전까지의 과정은 모두 이 단계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서 ‘나’의 내면적 측면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면, 이 장에서는 내면의 어두움을 걷어 내고 한층 단단해진 ‘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마

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나’

‘나’라는 개인은 이 세상, 즉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개인은 나와 타자로 구성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모두 나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나, 너, 우리가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순간, ‘나’의 존재는 사회 속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회와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이 특정 집단이나 공동체에 종속되어 살아간다고 말한대거나,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 각 개인은 특정 집단 혹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좁게는 친구라는 관계 안

에서, 넓게는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존재
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살펴
봅시다.

(…)





쉬어가기


 이 책을 읽기 전의 나의 모습과, 읽고 난 후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봅시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로 적어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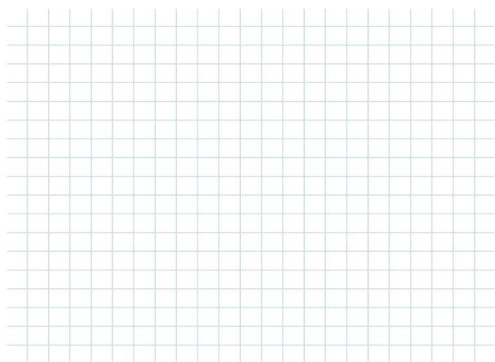
- 읽기 전 나의 모습


- 읽은 후 나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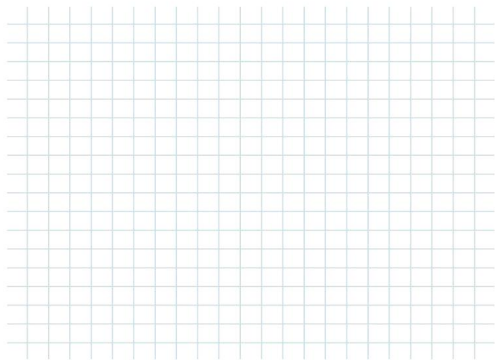




 나에게 있어 '벗'이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벗의 미덕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나의 개인적 삶의 신념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나의 사회적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작가의 말

우리는 쉽 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지쳐버리면 그때마다 저는 문학을 찾았습니다. 문학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인물을 만나 위안이 되기도 했고, 인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전문학을 거닐면서도 변함없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대, 상황 등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비슷한 고민과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제가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독자 여러분들께서 고전문학을 여행하며 어떠한 것이든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서지혜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현대인들은 은퇴 전까지 평생 일하며 살아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퇴근해 저녁 식사 후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아침입니다. 이 쳇바퀴 속에서 제대로 나를 돌아볼 시간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점점 '나'를 잃어가게 되고 피폐함 속에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분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에 자아를 찾아가는 책을 기획하며 조금이라도 위로받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의 독자가 되시는 분들에게서도 고전을 여행하는 순간이 힐링의 시간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책으로 잠시나마 여행을 가야겠습니다.

- 안희주

크나큰 포부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한 권의 책을 펴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작고 가벼워 보이는 이 한 권의 책에는 한 학기를 동고동락한 우리 팀 네 명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끝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완성한 결과물이지만, 분명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인생을 논하고자 했던 이 청년들의 패기와 도전, 그리고 완성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이 책을 기어코 완성해낸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자들에게도 많은 위로를 주었던 고전의 매력을 담백 담았습니다. 부디 독자들께서 이 책으로 많은 위로와 공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동현

고전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고전의 재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책을 기획하였습니다. 네 친구가 모여 좋은 뜻으로 책을 펴냈는데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전을 읽고 원고를 써내는 동안만큼은 무척이나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직 미숙한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고전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 황수정

고전문학과 함께하는 새로운 나의 모습 찾기

‘나’를 찾아가는 여행

1판 1쇄 발행 | 2021년 11월 22일

지은이 | 서지혜(3장), 안희주(2장), 유동현(4장), 황수정(1장)

디자인 | 안희주, 유동현, 황수정

검 수 | 서지혜

책임편집 | 유동현, 황수정

책임전화 | 010-2966-5196

전자우편 | sjihye01@ajou.ac.kr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친 삶의 순간, 당신에게 건네는 '고전'이라는 위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지치고 아파하는 마음을 지니고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반복되는 아픔에 무뎌진다면, 본연의 '나'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나'를 되찾기 위해서는 잠깐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_서문 중에서